

Jungsook Ahn

Tension 2021



“Life itself is tension”

직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적 한계일 수 있다. 그 직선은 영원히 뺄어갈 수 있을까?
무한한 원의 일부분을 보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전거가 지나간 길은 직선으로 보이지만, 그 직선은 둥근 바퀴가 회전하면서 남긴 흔적이다.
원이 직선이고, 직선이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내적 갈등, 타인, 이념, 종교, 인증 등.
다름에서 출발한 작은 논쟁에서 큰 전쟁까지,
결국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타인이다.
유한한 삶, 무한한 시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1995)의 '타자철학'에서 타자란,
주체가 함부로 하거나, 다스리거나, 자기 생각 속으로 끌고 올 수 없는 '영원한 타자'라고 본다.

캔버스 위에 직선과 곡선이 이루는 팽팽한 긴장 관계를
단색으로 '평화'의 기운을 표현해보고자 한다.

- 작가 노트



Straight lines can be the visual limit we can see. Can that straight line stretches forever? Is it not that you are mistaken in looking at parts of an infinite circle? The road through which the bike passed appears a straight line. That straight line is the trail left by the round wheel spinning. A circle is a straight line and a straight line can be a circle.

Many of the things we currently believe to be truth can be interpreted in a variety of ways. Inner conflict, others, ideology, religion, race, etc. From small debates starting from differences to big wars, our lives are a continuation of tension every moment, eventually heading towards death.

We are all others to each other. We live in finite life, infinite space and time. Starting from recognizing the difference we have from each other, if you live with respect and love others!

From the Philosophy of 'The Other' by Emmanuel Levinas (1906-1995), Levinas defines 'The Other' as an eternal 'the other' who cannot be involved, ruled, or dragged into one's thought.

With a tight tension relationship between straight lines and curves on the canvas, I want to express the aura of 'peace' in solid color.

- Artist's Note

"Life itself is tension" 안정숙 展

송아트갤러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아크로비스타 아케이드 L 층 B133 호

일정 2021 년 9 월 7 일(화) – 10 월 2 일(목)

문의 02)3482-7096 / haksoosong@naver.com / www.songartgallery.com

SONG ART GALLERY